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I.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 / 3

II. 활황세의 내수시장 / 7

7	1. 소득 및 소비수준 변화
16	2. 주요 제품/산업별 시장동향
29	3.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라이프 스타일 변화

III. 본격 성장하고 있는 기업 / 31

IV. 건전해지고 있는 국가 재정 운영 / 38

V. 시사점, 향후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 41

41	1. 시장환경
42	2. 기업투자
43	3. 정부정책
46	4. 우리의 대응방안

요 약

19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쇠락했던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고유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석유·천연가스 수출호황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2006년말 기준 9,8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으로 규모면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중국·일본에 이은 세계3위의 외환보유국으로 발돋움하였다.

2000년 이후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7천억 달러는 정부, 기업, 가계에 흘러들었다.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석유안정화 기금을 비축하여 유가하락에 대비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 프로그램 종자돈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제는 국제금융계의 큰 손으로 등장할 체비를 갖추고 있다. 주가지수는 1999년 58에서 2007년 4월 1,925로 약 33배나 급증하였으며, 시가총액 세계3위 기업으로 성장한 천연가스 독점기업 가즈프롬(Gazprom)을 비롯, 석유·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몸집을 크게 늘렸다. 국민들도 2000년대 들어 세 배 이상 높아진 소득수준으로 인해 소련시절의 궁핍함에서 벗어나 소비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금년 중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유력시 되는 등 러시아가 유망시장으로 급속히 떠오르자 투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서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그 동안 거의 숨죽였던 제조업도 외국인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오일머니 유입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수시장 활성화이다. 내수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견인차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이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 활성화로 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 고가의 제품도 매매가 활발하며, 가전, 이동통신기기, IT제품 등의 판매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여유자금의 많아짐과 소비자들의 제품 교체 사이클이 짧아지고, 고가의 브랜드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등 제품 구매 패턴도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가전, 핸드폰,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하여 현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온 우리 기업들도 러시아 시장을 재평가하고, 공격적인 현지마케팅과 투자진출을 강화하는 등 진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I. 오일머니¹⁾ 유입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

-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후 '90년대 중반까지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혼란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보였으며, 1998년에는 5.3%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여 급기야 모라토리엄(채무 지불 유예) 선언을 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었음. 그러나 불과 10년도 안 돼 글로벌 경제 무대의 주역으로 변모하고 있음.
- 1998년 4백억 달러규모의 부채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18개국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에 237억 달러에 이르는 장기 부채를 2006년 8월 조기(早期) 상환하였음.
- 1999년 이후 연평균 6~7%대의 고성장을 지속한 결과 1999년 1,959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06년 1조 달러 규모로 5배나 증가함.
-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중국과 일본에 이은 외환보유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
- 같은 기간중 1인당 GDP는 1,334달러에서 2006년 6,873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24억6천만 달러에서 2006년 3천37억3천만 달러로 약 25배 급증하였음.
-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은 모라토리엄 당시 투자부적격(B-)까지 떨어졌지만 '06년 9월 파리클럽 채무 상환 후 'BBB+'로 무려 8단계나 수직 상승²⁾하였음.
- 러시아는 “2009년까지 영국, 프랑스까지 제치고 경제규모 세계 6위권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³⁾을 하게 되면 이런 자신감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 오일머니는 석유,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말함

2) Standard & Poors

3) 2007년 말까지 가입이 예상되고 있음

〈표 I -1〉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지 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인구(백만명) ^{주1)}	145.6	145.0	144.2	143.5	142.2
GDP(백만\$)	346,562.9	432,883.7	582,300.0	766,088	979,400
GDP성장율(%)	4.7	7.3	7.1	6.4	6.8
1인당 GDP(\$)	2,418	3,000	4,060	5,361	6,873
소매물가상승율(%)	15.1	12	11.7	10.9	9.0
실업율(%)	7.1	8.9	6.1	7.7	6.7
수출(\$백만)	106,936	134,400	182,000	243,600	302,000
수입(\$백만)	60,520	74,800	94,800	125,300	164,500
경상수지(\$백만)	29,116	35,410	58,592	83,558	94,467
외채(\$억)	1,497	1,654	2,114	2,585	3,097
외국인투자(\$억)	197.8	297.0	405.1	537	551
외환보유고(\$억)	477	769.4	1245.4	1,822	3,037
평균환율(루블/\$)	30.96	30.69	28.81	28.28	27.18

자료 : 러시아통계위원회, 경제개발통상부, 중앙은행, 재무부

□ 경제성장의 원인으로는 ①고유가에 기인한 오일달러 유입 급증과 ②이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③푸틴 집권 후 정치·사회적 안정세 시현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제2의 석유수출국으로 지난 해 전체 수출액의 65%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액(약 2천억 달러)일 정도로 이들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수년간의 고유가 혜택을 크게 받았음4).

〈표 I -2〉 러시아의 수출 구조

수 출 품	2006년 수출 비중
원유, 천연가스	65.1%
금 속	13.8%
기계/설비	5.8%
화 학	5.6%
기 타	9.7%
합 계	100%

자료 : 러시아통계위원회, Country Profile 2006 Russia(EIU)

4) 석유 : 확인매장량(744억 배럴) 세계 7위, 생산량(2005년 955만 b/d) 및 수출량 세계 2위
천연가스 : 확인매장량(48조 m³) 및 생산량(2005년 5,980억 m³) 세계 1위

- 특별히 수출구조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2002~2006년 기간 중 수출액이 1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로 3배나 증가하여 세계 13위의 수출국으로 자리매김⁵⁾.
 - 반면 같은 기간 중 외국인투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수출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미미함.
- 아래 <표 1-3>에서 나타나듯 러시아에 유입되고 있는 오일머니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유입된 총액은 7,04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모라토리엄 이후 러시아에 유입된 오일머니

(단위 : 십억 달러, %)

	총수출액	원유·가스 수출액(A)	우랄유 평균 가격(US\$/배럴)	총수출중 원유· 가스 수출비중
2000년	103.1	55.5	23.9	53.8
2001년	100.0	54.7	23.0	54.7
2002년	106.7	58.9	23.7	55.2
2003년	133.7	76.6	27.2	57.3
2004년	181.6	105.0	34.4	57.8
2005년	241.2	155.9	50.6	64.6
2006년	303.9	197.9	61.1	65.1
총계	1,170.2	704.5	34.84	58.36

자료 : 러시아 통계 위원회, 관세 위원회, 경제통상개발부

- 한편 급속히 유입된 오일머니는 2000년대 이후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내수 소비시장이 급성장하였음.
- 2000년 이후 소비시장 규모는 3배 이상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 모스크바에 러시아 1호점을 개설하였던 이케아(IKEA)는 모스크바 시민의 소비수준이 스웨덴 소비수준과 맞먹는다고 2002년에 평가한 바 있음.

5) 같은 기간중 국제 유가도 배럴당 20 달러 가량에서 60 달러 가량으로 약 3배 올랐음

- 그러나,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정부는 최근 풍부한 오일머니를 산업부문의 투자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는 2006년의 경우 수출의 65%, GDP의 16%로 나타나 극심한 '에너지 의존형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자원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 유가에 민감한 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 천연자원 분야에 집중되었던 투자를 자동차 생산, 식품 가공 등 제조업으로 다변화시키려고 노력 중임.
- 이렇듯 2000년 이후의 러시아는 고유가 지속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되고 재정건전성도 높아졌으며, 고성장 지속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내수소비도 증가하고 있음.

II. 활황세의 내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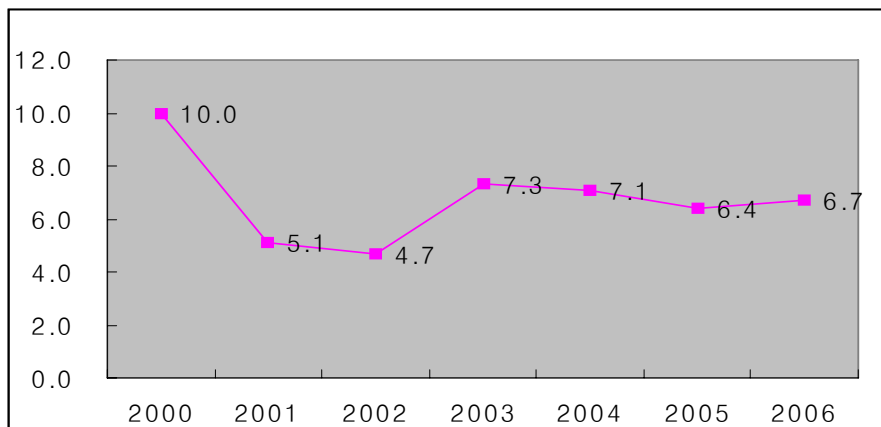
1. 소득 및 소비수준 변화

□ 1999년부터 성장세로 반전된 러시아 경제가 민간부문 소비활황으로 이어진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2001~2002년경부터임.

○ 소련 붕괴후 러시아 사회는 극소수의 부유층과 대다수의 빈민층으로 이분화되어 있었으나 모라토리엄 이후 루블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입제품가격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체 산업이 조금씩이나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음.

□ 이후에도 연평균 7%내외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경제성장을 오히려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 -1〉 2000~2006 기간중 러시아의 GDP 성장률(%)



자료 : 러시아통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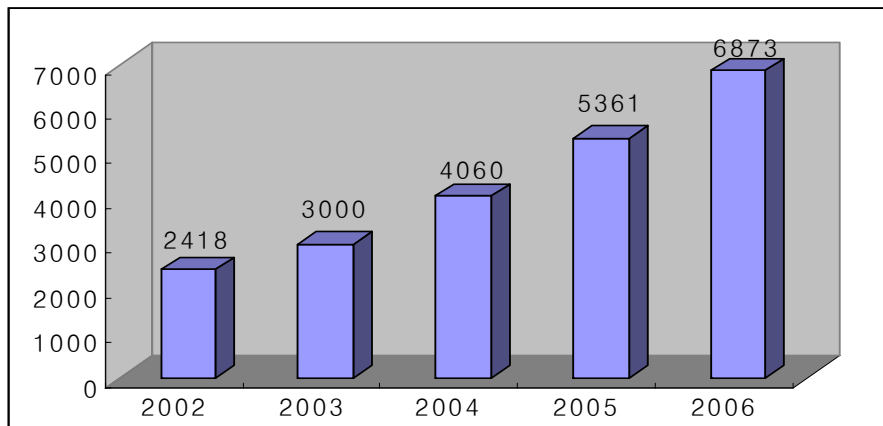
□ 러시아의 수치상 1인당 GDP는 7천 달러 가량이나, 실제 가처분 소득 및 소비수준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음.

○ 이는 ①절세를 위한 낮은 소득신고의 횡행, 소위 Grey Market의 비중이 높아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소득이 많이 있는 점, ②교육·수도·전기·유선통신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의 가격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저렴

하다는 점, ③공산주의 시절의 습관으로 인해 저축율이 낮고 버는 대로 써 버린다는 점 등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실질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 PPP) 기준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단순 수치로 나타나는 것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⁶⁾.

〈그림 II-2〉 러시아의 1인당 GDP 변화추이(US 달러)



자료 : 러시아통계위원회

- 표II-1에서와 같이 2005년 러시아 가계의 실질 소비 총액은 약 12조 루블(약 4,400억 달러)로 2000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하였음.
- 실질소비 총액 뿐 만 아니라 1인당 실질소비, 월 평균 국민소득, 월 평균 명목소득 등 소득/소비관련 지표가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함.
- 극빈층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활비 이하 생활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중 절반가량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2006년 월평균 명목소득은 10,736루블(약 395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24.5%에 이르렀으며, 실질소득증가율도 10%에 이름.

6) 미국 CIA World Factbook은 2004년 PPP 기준 러시아 1인당 GDP를 9,800달러로 평가하여 2004년 1인당 GDP인 4,060달러에 비해 약 2.5배로 고평가

〈표 II-1〉 소득 및 소비관련 러시아 통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가계 실질 소비 총액 (단위 : 현재가격 기준 십억 루블)		3,813	5,014	6,390	7,710	9,573	11,976
1인당 실질소비(단위 : 루블)		26,014	34,347	43,976	53,330	66,563	83,680
1인당 실질소비 증가율(불변가격 기준)		5.9%	8.2%	7.7%	6.7%	9.9%	9.6%
월평균 국민소득(단위 : 루블)		2,281.1	3,062.0	3,947.2	5,170.4	6,410.3	8,023.2
실질가치분 소득 증가율		12.0%	8.7%	11.1%	15.0%	10.4%	11.1%
월평균 명목소득(단위 : 루블)		2,223.4	3,240.4	4,360.3	5,498.5	6,739.5	8,554.9
실질 급여 증가율		20.9%	19.9%	16.2%	10.9%	10.6%	12.6%
최저 생활비 이하 생활자	인구수(단위 : 백만명)	42.3	40.0	35.6	29.3	25.2	주)
	총인구중 비율	29.0%	27.5%	24.6%	20.3%	17.6%	
	전년대비 증감율	△15.1%	△5.4%	△11.0%	△17.7%	△14%	

주) 최저생활비는 매년 러시아 정부가 기준을 발표하여 왔으나 2005년에는 미설정
자료 : 러시아 통계위원회

□ 업종별 명목소득을 보면, 석유·천연가스 업종 종사자의 평균 월급여가 러시아 평균의 3배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석유·천연가스 업종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2005년 약 23,500루블로 나타났는데, 이는 달러로 환산 시 연봉 1만 달러 수준임.

〈표 II-2〉 주요 업종별 월평균 명목소득

(단위 : 루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러시아 평균		2,223.4	3,240.4	4,360.3	5,498.5	6,739.5	8,554.9
농·림·수렵업		985.1	1,434.6	1,876.4	2,339.8	3,015.4	3,646.2
어업		2,845.6	3,839.3	5,031.3	5,444.5	7,084.9	10,233.5
자원채취업		5,940.2	9,099.2	11,080.9	13,912.4	16,841.7	19,726.9
	연료에너지(석유가스 등) 채취	6,985.1	10,905.4	13,080.3	16,135.5	19,903.3	23,455.9
	연료에너지 외 채취	3,999.5	5,386.5	7,035.0	9,395.7	10,876.6	13,176.0
제조업		2,365.2	3,446.6	4,439.1	5,603.4	6,848.9	8,420.9

자료 : 러시아 통계위원회

□ 같은 기간 중 러시아인의 월평균 일인당 소득액에 따른 인구 비율 구조도 크게 개선되었음.

- 2000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500루블(약 50달러)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가 넘었으나, 2005년의 경우 3%로 그 비중이 크게 낮아졌음.
- 반면, 월 평균 7,000루블(약 260 달러)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00년 불과 2.5%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무려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3〉 총인구중 월평균 일인당 소득액에 따른 인구비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000루블 이하	20.4%	12.5%	6.8%	3.3%	1.9%	0.8%
1,000~1,500루블	19.9%	15.0%	10.6%	6.5%	4.3%	2.4%
1,500~2,000루블	16.4%	14.4%	11.8%	8.5%	6.1%	3.9%
2,500~3,000루블	20.7%	21.7%	21.0%	17.7%	14.3%	10.6%
3,000~4,000루블	10.4%	13.4%	15.2%	15.1%	13.7%	11.7%
4,000~5,000루블	5.3%	8.2%	10.4%	11.7%	11.7%	11.0%
5,000~7,000루블주)	4.4%	8.2%	11.9%	15.4%	17.0%	17.8%
7,000~12,000루블	2.5%	6.6%	12.3%	15.2%	19.6%	24.1%
12,000루블 이상	주)	주)	주)	6.6%	11.4%	17.7%

주) 2000~2002년 기간중에는 7,000루블 이상으로만 통계를 집계

자료 : 러시아 통계위원회

□ 모스크바의 1인당 월평균 소득 수준은 30,486루블(1,120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간 기준 13,000 달러대임.

- 전년 대비 무려 22.8% 증가한 수치이며,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추세임.

- 모스크바 시민의 월평균 수입은 나머지 지역 평균의 약 3배임.

※ 2006년 모스크바의 월평균급여는 17,900루블, 나머지 지역 평균은 약 12,000루블로 평균 급여차이에 비해 평균 소득차이가 훨씬 큰데, 이는 모스크바 시민이 아파트 임대와 소규모 자영업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임.

- 최상위 계층 10%(100만명)의 1인당 수입은 月 129,654루블(4,770달러)로 전체 소득의 42.5%를 차지하였으며 최하위계층 10% 수입의 41배임.
- 모스크바 시민중 30% 이상(300만명)은 1인당 월평균 1천 달러 이상 소득임.

〈표 II-4〉 모스크바 시민 월평균 일인당 소득액

(단위 : 루블)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전체 평균	10,282	16,827	24,840	30,486
상위 0~10%	48,096	74,915	104,153	129,654
10%~20%	17,695	30,352	46,679	57,064
20%~30%	10,953	19,286	30,374	36,903
30%~40%	7,621	13,353	20,813	25,256
40%~50%	5,624	9,650	14,616	17,774
50%~60%	4,280	7,144	10,615	12,915
60%~70%	3,286	5,336	7,969	9,644
70%~80%	2,484	3,941	6,041	7,249
80%~90%	1,780	2,762	4,442	5,266
90%~100%	1,004	1,526	2,699	3,135
하위 10% 계층대비 상위 10%의 소득(배)	47.89	49.08	38.60	41.36

자료 : Moscow City Statistics Agency (Mosgorstat)

□ 러시아 통계위원회의 국민 소득·소비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2000년 대비 '05년 소득과 소비수준은 3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하였음.
- 평균 소득은 석유·가스업종이 가장 높았으며, 이들 업종의 현금이 타 업종에 흘러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소득 증가 현상은 상위 특정계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수도인 모스크바 집중현상이 심해지면서 타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소득 증가분은 소비 증가로 바로 이어지고 있음.

□ 이렇듯 소득과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형태도 크게 변화하였음.

- <표II-5>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소득의 47.6%를 식품구매에 할애하였으나, 2005년에는 33.2%로 비중이 대폭 낮아졌으며, 반면 외식 비중은 1.8%에서 2.9%로 급증하였음.

〈표 II -5〉 러시아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①식품 구매	36.1	31.5	49.0	47.6	45.9	41.7	37.7	36.0	33.2
빵류	4.3	3.1	8.2	8.1	8.5	7.1	6.5	6.5	5.6
감자	0.9	0.8	1.0	0.9	0.8	0.8	0.8	0.6	0.5
야채	2.8	3.0	2.9	2.5	2.4	2.4	2.3	2.1	2.0
과일	2.8	3.4	2.8	2.4	2.3	2.3	2.2	2.2	2.0
육류	9.3	8.6	13.2	13.1	13.3	12.5	10.9	10.5	10.1
어류	1.7	1.3	2.2	2.5	2.6	2.4	2.1	2.1	2.0
우유/유제품	5.6	4.0	7.4	6.4	6.0	5.6	5.1	4.9	4.6
설탕 및 당과	5.1	3.8	6.0	5.9	4.4	3.5	3.1	2.7	2.3
계란	1.8	1.1	1.5	1.2	1.1	0.9	0.8	0.8	0.6
식용류 등	0.8	0.6	1.5	1.5	1.3	1.3	1.0	0.9	0.7
차/커피 등	1.0	1.8	2.3	3.1	3.2	2.9	2.9	2.7	2.8
②외식(공공급식)	6.4	4.6	3.0	1.8	2.5	2.4	3.0	3.5	2.9
③주류 구매	5.4	5.0	2.5	2.5	2.4	2.2	2.2	2.1	1.9
④비식품품 구매	37.8	45.8	31.8	34.3	34.4	36.2	37.3	37.2	38.5
의류/신발 등	21.0	23.6	14.6	15.5	13.4	13.3	12.4	11.4	10.5
휴식/오락용품	3.0	5.0	3.9	3.2	3.2	3.4	4.4	4.6	5.2
운반수단	2.1	2.3	2.0	2.8	3.6	4.6	4.3	5.1	6.7
연료	0.4	0.2	1.1	1.5	1.3	1.6	1.7	1.8	2.1
가정용품/가구	5.0	5.7	3.6	4.5	5.2	5.7	6.4	6.0	6.3
위생/의약품 등	1.8	2.7	2.9	3.9	3.9	3.9	4.0	4.0	3.9
담배	0.9	0.9	1.0	1.2	1.1	1.0	1.0	0.9	0.8
기타	2.9	3.8	1.3	0.7	1.3	1.2	1.2	1.4	1.1
⑤서비스 이용	14.3	13.1	13.7	13.8	14.8	17.5	19.8	21.2	23.5
주택 및 유틸리티 이용	3.7	3.1	4.3	4.6	5.2	6.2	7.2	7.7	8.3
수리	1.2	1.3	1.4	1.0	1.0	1.5	2.1	1.6	1.8
기타 개인서비스	0.6	0.8	0.8	0.8	0.6	0.7	0.6	0.8	1.0
문화 서비스	1.0	0.9	0.2	0.4	1.0	1.1	1.4	1.7	2.1
교육 서비스	2.3	2.2	1.2	1.2	1.4	1.7	1.6	2.0	2.2
의료 서비스	...	...	0.4	1.0	0.6	0.9	0.7	0.8	1.0
요양 서비스	1.4	1.1	0.7	0.6	0.4	0.3	0.5	0.5	0.4
법률 서비스	...	...	0.1	0.1	0.0	0.1	0.0	0.1	0.1
대중교통 서비스	3.4	2.6	3.6	2.6	2.5	2.7	2.8	2.9	2.9
통신 서비스	0.4	0.5	1.0	1.2	1.2	1.5	1.9	2.2	2.7
기타	0.3	0.6	0.0	0.3	0.9	0.8	1.0	0.9	1.0

자료 : 러시아 통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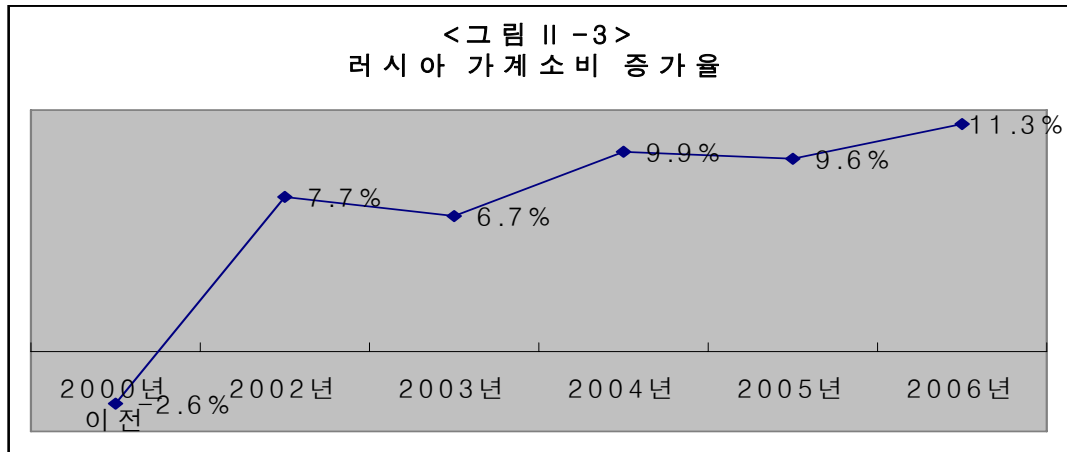
- 차량 등 운반수단에 대한 지출은 2.8%에서 6.7%로 두 배 이상 급증함.
 - 소련시절에는 개념조차 낳설었던 「유료 서비스」이용에 따른 지출비용도 2000년 13.8%에서 2005년 23.5%로 크게 증가하였음.
 - 특히 무선통신 가입자 증가로 인해 통신서비스 지출 비중이 2000년 1.2%에서 2005년 2.7%로, 문화 서비스 지출비중도 0.4%에서 2.1%로 5배 이상 급증하였음.
- 2000년대 초 러시아의 경제성장이 자원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소득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였음.
- 2006년의 경우 민간소비의 비중이 러시아 GDP의 거의 50%를 차지함.

〈표 II-6〉러시아 GDP 구성

분 야	2006년 비중(%)
민간 소비	48.9
공공 소비	17.7
고정자본 투자	18.0
stock building	2.3
수출	13.8

자료 : Country Profile 2006, Russia(EIU)

- 러시아의 가계소비 증가율은 <그림 II-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근년 들어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러시아 통계위원회

□ 도매유통 규모는 최근 연평균 15% 내외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표 II -7> 연도별 도매유통규모

연 도	도매유통액(십억 루블)	전년대비 증감율(%)
2000년	4,256.8	44.5
2001년	5,507.8	7.0
2002년	6,819.2	7.6
2003년	8,887.7	14.5
2004년	11,422.9	14.3
2005년	15,671.1	15.7

자료 : 러시아 통계위원회

□ 금융권의 대출 활성화가 소비급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4년 하반기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추면서 은행들의 현금유동성이 개선되어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늘어난 통화량은 기업대출을 통해 산업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자동차 등 고가의 내구재 판매도 증가하였음.(05년 소비 대출은 전년 대비 77.3% 증가)
- 2006도 GDP의 5% 수준이었던 신용 대출규모는 2007년도에 9%까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내수시장 확대와 구매력 상승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도에도 소매 매출 증가율은 12.3%에 달하였음.
- 물가도 지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06년도 물가상승률은 9%로 '95년 이후 최초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IMF에서는 '07년도 물가상승률을 8%로 예상하였음.

□ 2008년 대선을 앞두고 2007년 중 통화량 증가가 예상됨.

-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유가 상승의 도움이 없더라도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취약한 국내제조업 기반, 소득증대와 루블화 강세로 인해 수입제품의 경쟁력은 지속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제품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05년 시장의 45%를 수입품이 점유)
- 취약한 국내 제조업 때문에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과 더불어 소득증대에 따른 고급제품/브랜드제품 선호현상 심화되고 있음.
- 금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루블화 강세 기조는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고 있음. 단, 경기 활성화로 인해 수입 제품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경제개발통상부가 2006년 러시아 진출 155개 다국적 회사를 대상으로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여부를 설문조사해 작성한 '대(對)러시아 투자의향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90%가 투자확대의향을 밝혀 외국기업의 투자진출도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전망됨.

□ 산업분야별로는 건설, 어업, 음식료, 금융업종이 2006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표 II-8〉 분야별 러시아 산업 성장률

분야	성장률(%)	분야	성장률(%)
건 설	14.0	행정·군사분야	5.0
어 업	12.0	제조업	4.9
음식료	11.2	보건·공공서비스	3.8
금 융	10.4	전력·천연가스·용수	2.6
운송·통신	9.4	광 업	2.1
상 업	8.7	교 육	1.8
부동산	5.6	농업·임업	1.7

자료 : Prime-Tass '07.1.31

2. 주요 제품/산업별 시장 동향

건설·플랜트·부동산

- ☐ 건설시장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활발히 성장중임.
- ☐ 공공부문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1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신규 건설 및 노후 시설 교체 수요가 막대하며 석유와 가스 수출호조로 파이프라인 및 관련 플랜트 건설이 활발함.
- ☐ 민간부문도 노후 건물 리모델링 분야와 경제성장에 따른 신규 상업용/사무용 건물 및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중임.
- ☐ 최근 러시아는 전 지역에 걸쳐 아파트·호텔 등 빌딩, 도로·항만 등 교통인프라, 석유·가스 관련 플랜트 등 각종 건설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05년 건설시장 규모는 약 640억 달러규모로 GDP의 7.2% 차지하였음.
 - '06년 기준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14% 성장하였으며, '07년도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II-9〉 러시아 건축시장 규모

연도	시장규모(십억 루블)	성장률(%)
2000년	503.8	13.5
2001년	703.8	10.4
2002년	831.0	2.9
2003년	1,042.7	12.8
2004년	1,313.5	10.1
2005년	1,711.7	10.5

자료 : 러시아통계위원회

〈표 II-10〉 건축 활동 관련 기관(기업)의 고정자본 투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액(십억 루블)	80.1	102.2	123.1	172.7
전체 투자중 비율(%)	5.6	5.6	5.6	6.1

자료 : 러시아통계위원회

□ 수도인 모스크바는 인구 천만 명의 거대도시이나 유럽의 런던·파리 등에 비해 오피스·호텔·쇼핑센터·병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1/10 수준에 불과, 국내외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함.

○ 최근 2년간 신규 호텔건설 관련 외자유치는 10억 달러로 알려짐.

○ 2006년 모스크바의 사무실 월평균 임대료는 s/m당 1,500달러로 유럽에서 런던에 이어 2위의 높은 수준이며, 공실률도 1~3%에 불과하여 사무실 공간 부족 현상이 극심함.

□ 주택가격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도시에서도 지난해 50%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음.

○ 이는 소득증가와 더불어 간편해진 주택대출로 인해 수요가 지속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러시아 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건설규모는 연간 4,500만 s/m인데 향후 수요가 급증하여 2010년에는 현재의 두 배에 가까운 8,000만 s/m를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외국계 투자도 활발

- 독일계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2006년 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조성되는 주거 전용 지역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중국의 5개 국영기업 연합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지역에 13억 달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인근에서는 UAE의 부동산 자본이 1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그림 II-4〉 최근 건설 중인 초고층 아파트 전경



- 한편 원유·가스 수출은 증가하는데 반해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관련 플랜트 시설 및 도로·항만 등 물류 인프라가 열악하여 앞으로도 건설·플랜트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시멘트, 유리, 목재, 벽지 등 건축 내외장재 공장이 부족하여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부족으로 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건자재의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 중장비도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큼.

IT

- TNS Gallup Adfact에 따르면 러시아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7년 4월 기준 약 2,8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정보통신부는 통신망 확장, PC 보급 등으로 인해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절반(약 7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II-11〉 연도별 인터넷 이용자 숫자

연도	인터넷 이용자(백만명)
2001	6.2
2002	9
2003	12
2004	18.5
2005	22
2006	25

자료 : 현지 언론 보도자료 종합

- 2006년 인터넷 쇼핑물 숫자가 전년대비 무려 42% 증가하는 등 인터넷 발달로 인한 라이프스타일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음.

〈표 II-12〉 연도별 광대역 통신망 보급 현황

연도	가입자수(백만명)
2003	0.23 ¹⁾
2004	0.56 ¹⁾
2005	1.2 ¹⁾
2006	2.2 ²⁾ , 2.5 ¹⁾

자료 : 1) J'son & Partners사, 2) Golden Telecom사

- 광대역 이동통신은 2006년 가입자 수가 100% 가량 급증하였음.
- 2004년 이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Wi-Fi 네트워크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컴퓨터 판매도 급증하고 있어 2006년 판매규모는 700만대에 이르렀음.

○ 개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주요한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음.

〈표 II-13〉 연도별 컴퓨터 판매 현황

연도	판매대수(백만대)
2000	1.5
2001	2.5
2002	2.9
2003	3.8
2004	5.1
2005	5.6
2006	6.9~7.3

자료 : IDC Russia, IT Research, Gartner

○ 많이 판매되고 있는 PC는 대부분 조립해 판매되는 제품이며, 최근 급격한 가격인하를 바탕으로 판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노트북의 경우 Acer가 최대 판매를 기록하였음.

〈표 II-14〉 연도별 LCD모니터 판매 현황

연도	판매대수(백만대)
2001	2.5
2002	3.2
2003	4.4
2004	5.4
2005	6.9
2006	7.2

자료 : Vedomosti지

□ LCD 모니터의 판매는 완만하지만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 LG, Acer 등의 17인치 및 19인치 모니터가 주로 판매됨.

□ 러시아 정부는 2001년 「Electronic Russia(E-Russia)」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 향후 8년간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정보통신기술 도입, 인터넷 인프라 개선, 전자정부 및 전자교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이동통신

- 신규가입자 시장의 경우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교체수요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고급제품을 구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객들의 단말기 교체주기는 평균 1년6개월에 불과함.
- 공식적인 휴대폰 가입자 수는 2007년 1월 현재 1억 53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1억 4200만 명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수치는 SIM카드 구매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동일인의 반복 구매가 포함된 수치) 실질적인 휴대폰 가입자 수는 7,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판매된 휴대폰 수는 총 1억 2610만 대로 추산됨.

〈표 II-15〉 최근 5년간 이동통신 가입자 현황

(단위 : 백만 명)

연도	이동통신가입자(SIM카드 기준)	실제 사용자수
2001	7.8	5.9
2002	18	12.7
2003	36.2	24.7
2004	73.8	45.7
2005	124	61.6
2007년 1월	153.2	N/A

자료 : Novosibirsk Research Center, ACM Consulting

- 러시아의 가장 큰 휴대폰 소매업체인 Euroset사에 따르면, 2006년 2,927만 대의 휴대폰이 판매되었음.(시장규모 56억 5000만 달러)
- 전년 대비 수량 기준으로 14% 하락하였으나, 판매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증가하였음.
- 이는 소비자들이 고급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2006년 판매된 휴대폰의 평균 가격은 193달러로 전년에 비해 18%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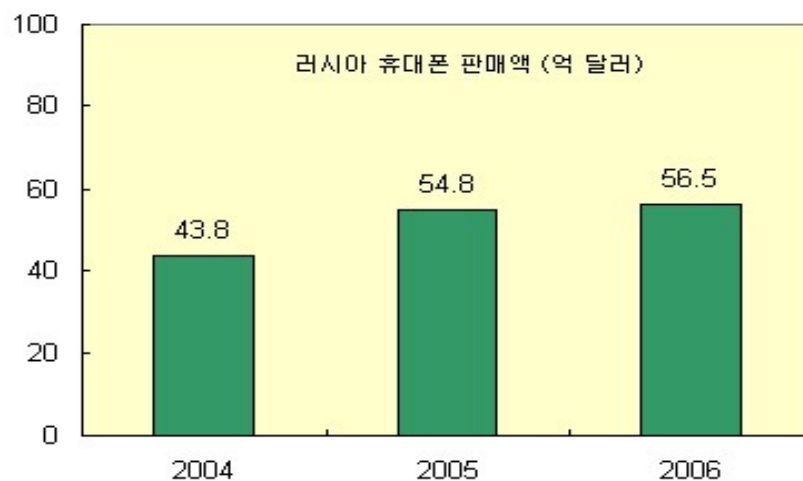
- 러시아 휴대폰 시장규모는 연간 50억~60억 달러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권임.

〈그림 II-5〉 러시아의 연도별 휴대폰 판매대수(백만 대)



자료원 : The Moscow News

〈그림 II-6〉 러시아의 연도별 휴대폰 판매액(억 달러)



자료원 : The Moscow News

자동차

- ☐ 소득 증가로 인해 자동차 대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II-16〉 연도별 등록차량 대수

연도	등록대수(백만대)
1995	14.7
1999	19.7
2000	20.4
2001	21.15
2002	22.34
2003	23.03
2004	24.1
2005	25.5
2006	26.2 ^{주)}

주) 2006년 초 기준

자료 : TLT News, 러시아 통계위원회, 국가 산업 정보 관리청

- ☐ '90년대 말~2000년대 초에는 중고 외국 브랜드 차량판매가 많았으나, '02년 중고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계기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외국 브랜드 신차 구매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표 II-17〉 연도별 중고차 수입 대수

연도	판매대수(백만대)
2000	0.4
2002	0.45
2003	0.4
2004	0.32
2005	0.33
2006	0.26

자료 : Expert, VEDI, PricewaterhouseCoopers

〈표 II-18〉 연도별 신규 차량 판매 대수

연도	판매대수(백만대)	판매 비중(%)	
		외국브랜드	러시아브랜드
2003	1.09	20	80
2004	1.29	31.8	68.2
2005	1.38	40.6	59.4
2006	1.8	55.6	44.4

자료 : Expert, VEDI, PricewaterhouseCoopers

□ 수요 급증으로 외국의 주요 자동차 메이저들은 시장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시장은 향후 더욱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투자컨설팅 기관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2010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 수준인 400만대를 상회, 독일에 이은 유럽 제 2의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외국 브랜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자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러시아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외국 브랜드 자동차 현지생산은 '03년 5.4만대에서 '05년 15.5만대로 2년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미진출 기업은 진출을, 기진출 기업은 생산규모 확대를 추진 중임.

□ 2006년 외국브랜드 신차 판매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대 돌파하였음.

○ 고급차 판매도 급증하여 볼보·렉서스·아우디는 모두 러시아 판매 사상 처음으로 1만대 벽을 돌파, 전년 대비 80%의 신장세를 보임.

□ 최근에는 저가의 중국과 이란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1분기 중 중국자동차 모델인 Chery(2006년부터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 조립생산)는 6,656대를 판매되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108%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이란산 Iran Khodro는 1,500대가 판매되어 713%의 판매신장율을 보였음.

〈표 II-19〉 러시아에 기투자/투자예정 주요 외국 자동차 업체의 투자 진출 계획

업체명	투자 규모 (백만 달러)	생산시점 (연도)	연간생산량 (대, 주요모델)	위치
Ford	230	2002	66,500(Focus)	Vsevolozhsk (St. Petersburg)
GM-AvtoVAZ	332	2002	75,000(Chevrolet Niva, Viva)	Tolyatti
Renault	250	2005	60,000(Logan)	Moscow
Toyota	140.5	2007	50,000 (Camry 20,000대 포함)	Shushary (St. Petersburg)
Volkswagen	540	2007 하반기	115,000 (Volkswagen Passat, Skoda Fabia)	Kaluga
Nissan	200	2009	50,000	Saint-Petersburg
GM	115	2009	25,000 (Chevrolet Captiva)	Saint-Petersburg
ZAZ, Bogdan	300	2009	120,000-160,000 (Chevrolet Lanos, Aveo)	Nizhny Novgorod
PSA (Peugeot - Citroen)	250	2009	60,000-80,000 (Citroen C4, Peugeot-307)	미정
Chery, Avtotor	300	N/A	Amulet	Kaliningrad
GM-Avtotor	95	N/A	60,000(Chevrolet Lacetti)	Kaliningrad

자료 : 현지 언론 종합

-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이 강점으로 Chery Amulet 1,600cc 차량은 가격이 불과 9,000달러에 불과함.(경쟁 제품의 절반 이하 가격)
- 반면 '07년 1분기중 현대자동차는 22,401대를 판매하여 겨우 2%의 판매신장을 보임.(2006년 1분기에는 50%의 성장률 기록)

※ 2004, 2005년에는 현대차가 수입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국내 파업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2위를 차지하였음.

〈표 II-20〉 2005~2006 러시아 외국 브랜드 자동차 판매현황

(단위 : 대, %)

No.	업체명	2006년	2005년	전년대비 증가율
1	FORD	115,985	60,654	92%
2	HYUNDAI	100,685	87,457	15%
3	TOYOTA	95,689	60,638	58%
4	NISSAN	75,529	46,485	62%
5	RENAULT	72,484	29,177	148%
6	GM	70,307	66,532	6%
7	MITSUBISHI	68,885	55,148	25%
8	DAEWOO	66,717	48,623	37%
9	KIA	59,993	24,671	143%
10	MAZDA	32,290	21,120	53%

자료 : 재러 유럽 자동차 비즈니스 위원회

가 전

- 가전제품 시장은 매년 20~40%의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로서, 2006년 시장 규모는 27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됨. 이러한 시장성장은 소득 증가와 더불어 신용 구매가 활발해 진 것에 기인함.

〈표 II-21〉 2002~2006 러시아 가전시장 성장율

연 도	성장율
2002	30%
2004	40%
2005	20%
2006	17%

자료 : Euromonitor, Technosila 등

-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외국의 투자 진출도 활발함.
- Indesit(이태리), Bosch & Siemens(독일), Electrolux(스웨덴), Sanige(리투아니아) 등 다국적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였으며, LG전자도 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여 2006년 9월부터 정식 가동을 시작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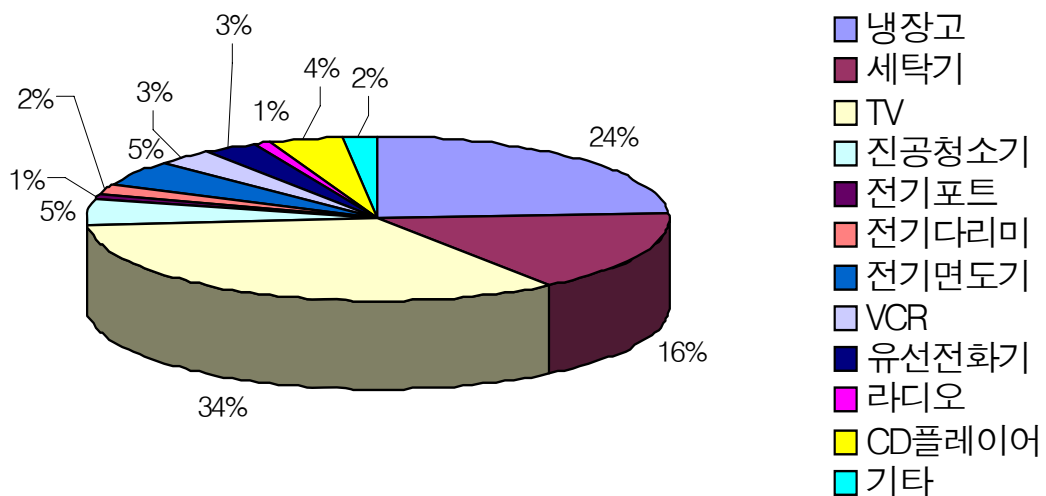
□ 구소련 시절부터 대규모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던 러시아 회사들은 '90년대 외국 기업들의 진출에 따른 경쟁과정에서 OEM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Telebalt 등), 외국 기업에 인수된 경우(Vyatka, Candy社에 인수), 사업을 철폐한 경우(Stinol 등) 등으로 구조조정 되었음.

○ 그 결과 2005년도 전체 시장의 93.7%가 외국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기술 이전, 자국 부품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6개 주요 지역에 특별경제구역(SEZ)를 설립하였음.

○ 가전 산업의 경우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리프츠크市에 위치한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세 인하·지방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음.

〈그림 II-7〉 2006년 러시아 주요 가전제품 생산비율(대수 기준)



□ 주요 제품별 러시아내 생산 비중은 최근 LCD TV의 가격 인하로 수요가 급증한 TV가 가장 크며 냉장고, 세탁기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유통

- ☐ 소비 활황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점포수 및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006년 소매업 성장률 13%)
- 1994년 러시아 소매체인점인 Sedimoy Kontinent의 1호점 개점을 시작으로 2002년에 28개 대형 유통점 브랜드 384개의 소매점이 등장하였으며, 2004년 도에는 3,627개로 급증하였음.
 - 최근 모스크바의 경우 IKEA, Mega, Auchan 등 대형 유통업체에 이어 독일계 유통 회사인 Media Markt가 진출하였으며, 터키계 유통 업체인 Ramstore도 매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중임.

〈표 II-22〉 러시아내 대형유통업체 연도별 매출액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2003년	2004년	2005년
Pyaterochka(러시아)	759.6	1,106.2	1,359.8
Metro(독일)	598.9	1,169.0	1,903.6
Magnit(러시아)	491.5	848.8	1,578.2
Perekryostok(러시아)	373.4	660.3	1,015.1
Auchan(프랑스)	354.2	835.6	1,497.9
Ramstore(터키)	341.5	386.5	499.1
7th Continent(러시아)	345.9	509.8	712.8
IKEA(스웨덴)	255.9	409.9	547.2

자료 : 업체별 발표 및 현지 언론보도 종합

- ☐ 대형 유통업체들은 모스크바 외에 지방으로도 활발히 진출 중임.
- 초창기에는 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매장이 형성되었으나, 유통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방도 소비수준이 높아지자 지방진출 가속화하고 있음.

3.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라이프 스타일 변화

☐ 제품 교체 사이클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

- 새로운 제품, 디자인에 빠르게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임.

☐ 꼭 필요한 제품 구매 외에 과시성 소비성향도 큼.

- 소득 증가와 함께 어려웠던 과거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 등이 뒤섞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임.
- 소비가 단순 필요용품의 구매를 넘어 감정적 만족을 주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 고가의 브랜드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 핸드폰 등 모든 소비용품 구매 시 저렴한 제품보다는 브랜드가 있는 고가의 제품 판매가 호조세임.
- 과시성 소비가 많이 행해짐에 따라 생활용품을 비롯해 전체 상품군에서 유럽/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대출을 통한 제품 구매 규모가 증대되고 있음.

- 소비자 대출의 상당 부분이 가정용/개인용 제품 구매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레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여행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크며, 추운 겨울이 긴 지역특성상 동계 해외여행이 매우 활발함.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야채 위주의 동양식 식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일식당들이 성업 중이며 헬스클럽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음.

-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쇼핑과 오락을 겸할 수 있는 대형쇼핑몰에서의 상품 구매가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음.
- 대형쇼핑몰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날씨와 상관없이 쇼핑과 오락을 겸할 수가 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시설을 보유한 종합 오락센터의 기능을 갖춘 경우가 많아 방문고객들은 쇼핑과 휴식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림 II-8〉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중인 러시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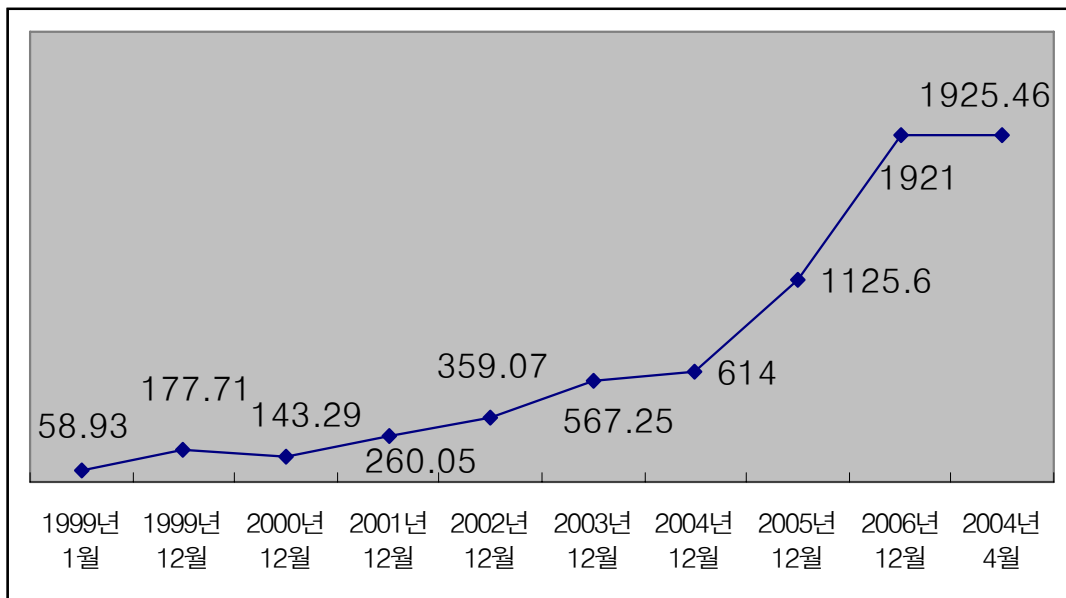
III. 본격 성장하고 있는 기업

□ 석유에너지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초대형 기업들이 탄생하였음.

- 국영기업인 Rosneft는 최근 석유 보유량에서 ExxonMobil, Lukoil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천연가스 독점기업인 Gazprom⁸⁾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3위 규모의 기업⁹⁾으로 성장하였음.

□ 러시아 주식시장은 1999년 주가지수 58.93에서 2007년 4월 28일 기준 1,925.46으로 약 33배의 급성장하였음.

〈그림 III-1〉 러시아 주가지수 동향



- 초기에는 평균 3천만 달러 규모였던 일일거래량 규모도 84억 달러 규모로 수백 배 급증하였음.

8) 세계 가스 부존량의 16%를 장악하고 있는 초거대 에너지기업으로 1991년 구소련의 가스부(部)가 국영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탄생, 러시아 가스생산의 93%를 책임지고 있음. 2006년 생산한 천연가스 양은 5472억m³.

9) 2006년 5월 가즈프롬은 주가 상승(1년새 400% 급등)으로 시가총액이 3053억9,000만 달러로 엑슨모빌(3908억 달러)과 제너럴일렉트릭(3729억 달러)에 이은 세계3위 기업으로 등장

□ 참고로, 러시아의 주요 대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I-1〉 2005~2006년 러시아 20대 기업 현황

2006 순위	2005 순위	회사명	2004년 매출액 (백만 달러)	2005년 매출액 (백만 달러)	2005년 영업이익 (백만 달러)	2005년 순이익 (백만 달러)
1	1	Gazprom	33,904.1	48,905.8	15,916.4	11,171.5
2	2	Lukoil	28,820.0	46,284	8,913.2	6,445.3
3	3	RAO EES	23,591.0	27,029.2	1,878.8	847.7
4	4	RZD (Russian Railways)	22,892.8	26,464.5	1,109.0	344.8
5	-	TNK-BP	-	24,837.4	4,146.5	2,096.9
6	22	Rosneft	4,516.6	17,670	6,216.2	4,160.5
7	7	Surgutneftegaz	10,694.6	15,777.5	5,509.9	4,188.9
8	8	Sibneft	8,889.6	14,585.3	3,687.3	2,805.9
9	9	Sberbank	7,467.4	11,024.8	3,098.4	2,327.0
10	12	Severstal	6,284.9	7,964.5	2,305.4	1,754.6
11	15	AFK Sistema	5,735.9	7,593.5	1,784.6	534.6
12	11	Svyazinvest	6,355.0	7,488.4	1,302.0	949.3
13	10	Norilsk Nickel	6,302.2	6,868	3,117.1	2,352.8
14	13	Svalneft	4,800.9	6,777.6	N/A	N/A
15	14	Evrast Group	5,935.2	6,508.1	1,519.6	1,043.0
16	19	Transneft	5,221.8	6,416.6	2,596.7	1,902.9
17	17	Rusal	5,496.6	6,305.5	N/A	N/A
18	18	Tatneft	5,234.1	6,007.2	1,772.7	1,292.9
19	23	Rosgorstrakh	3,878.2	5,612.8	21.5	19.1
20	20	Magnitogorsk Steel Maker	4,830.7	5,380	1,317.5	947.3

자료 : Expert지

- 주요 에너지 대기업들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앞 다투어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 또는 계획 중임.

〈표 III-2〉 주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계획 현황(예)

기업명	프로젝트 개요
Gazprom	반도 가스전 개발 및 시베리아, 극동 지방으로의 운송 프로젝트, 북극해 대륙붕 탐사 프로젝트, 해외 유전 및 천연 가스 개발 프로젝트(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베트남, 베네수엘라, 이란 등)
LUKoil	향후 석유 정제 부문 현대화에 23억 달러, 석유화학제품 생산 설비 7억달러 등 총 3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터키, 폴란드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위하여 불가리아 부르가 지역 정유 공장의 용량 증설할 예정임. 또한, 코티디부아르와 가나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미국 Vanco Energy사의 주식 지분을 57% 매입하여 서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Rosneft	북부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지역 유전 프로젝트와 사할린-1 프로젝트 등

- 러시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주요 거물 “올리가르히”는 다음과 같음.

- 이들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거부들로서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움직임은 러시아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계의 주요 이슈임.

〈표 III-3〉 주요 올리가르히 현황

1. Roman Abramovich	
재산/사업영역	192억 달러/투자
기타 특징	러시아 추코트카 지역 주지사이며, 영국에 등록된 "Millhouse Capital"사를 통해서 러시아 지역의 자본을 관리하고 있음. 2006년 6월 Evraz 그룹 지분의 41%를 약 30억 달러 가량에 매입
2. Oleg Deripaska	
재산/사업영역	168억 달러/RusAl, Bazel 사 등 기업 경영
기타 특징	RusAl, Bazel사를 경영하면서, SuAl, Glencore사 등을 M&A하는 과정을 통해 78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

3. Vladimir Lisin	
재산/사업영역	151억 달러/Novolipetsk 철강 회사 경영
기타 특징	90년대 초 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산을 늘린 전형적인 올리가르흐이며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각종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5. Michael Prokhorov, Vladimir Potatin	
재산/사업영역	각각 150억 달러/Interros사 경영
기타 특징	Interros사의 공동 대표인 두 사람은 Norilsk Nickel의 주식 매입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였으며, 각각의 지분에 대한 경영 관리 회사를 별도로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Forbes

□ 한편, 든든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하는 주요 러시아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임.

○ 미국계 시장조사기관 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2006년 연말 기준 러시아는 해외투자 누계액이 1,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2006년 투자액만 해도 130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고 함.

〈표 III-4〉 러시아 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사례

회사명	진출 동향
Evraz	2007년초 미국 Oregon Steel사를 23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송유관 및 설비 생산 기업인 캐나다 IPSCO사를 인수할 계획
Gazprom	파키스탄의 석유 가스 등 개발 산업에 진출코자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와 가스관 설비 등에 투자 계획
Rasperia trading	오스트리아의 주요 건설 기업인 Strabag사의 주식 지분 30%를 12억 유로에 매입하는 협약 체결
Borodino	동 사는 2007년 4월 유럽의 주요 청량음료 설비 생산 업체인 이탈리아의 SBC Bottling & Cannig 사를 인수

자료 : 현지 언론 보도 자료 종합

○ 러시아 알루미늄 1, 2위 업체인 루살(RusAl)과 수알(SuAl)은 2007년 4월 스위스 원자재회사 글렌코어를 36억 달러에 인수해 합병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세계 최대 알루미늄 기업으로 탄생하였음.

○ 국영은행 브네쉬토프그뱅크(Vneshtorg Bank)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 업체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에 지분 확대 투자를 하였음.

□ 최근 5년간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 FDI도 4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었으며, 주요 분야는 승용차, 가전제품, 건설자재, 식품, 종이 등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건설·유통,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활발함.

〈표 III-5〉 대 러시아 외국인투자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전체	19,780	100	29,699	100	40,509	100	53,651	100	55,109	100
FDI	4,002	20.23	6,781	22.8	9,420	23.3	13,072	24.4	13,678	24.8
FDI 증가율	0.5		69.4		38.9		38.8		4.6	

자료 : 러시아 통계 위원회

□ 2006년 산업분야별 투자를 보면 제조업, 유통업 및 기타 서비스업, 천연자원개발이 각각 전체 투자 중 31%, 25.4%, 19.4%로 도합 75.8% 차지하였음.

○ 이는 최근 러시아 오일머니의 유입에 따른 중산층의 성장 및 확대에 의한 소비 경기 활성화와 함께 자원개발이 활발함을 반영함.

〈표 III-6〉 2006년 주요 산업별 투자통계

(단위 : 백만 달러,%)

	2006년 자본유입	2006년 자본유출	2006년 기준 누계	
			합계	비율
합계	53,651	29,182	111,835	100.0
농/림/수렵업	156	55	645	0.6
수산업	22	27	147	0.1
천연자원개발	6,003	1,470	21,660	19.4
제조업	17,987	9,923	34,653	31.0
전기, 가스, 수도 공급	328	161	644	0.6
건설	228	85	822	0.7
유통업, 기타 서비스업	20,461	11,803	28,373	25.4
숙박업	52	26	430	0.4
교통 및 통신업	3,840	757	9,918	8.9
금융업	1,813	1,002	5,612	5.0
부동산업	2,602	1,122	8,329	7.4
정부조달, 국방, 사회보장	0.0	2622	101	0.1
교육	0.1	0.0	2	0.0
공중보건	15	31	34	0.0
기타 주택, 사회 복지 등	144	98	465	0.4

자료 : 러시아 통계 위원회

-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 증가, 러시아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일부 기계류 품목에 대한 한시적 관세 폐지 등에 따라 기계류 수입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표 III-7〉 러시아 연도별 기계류(HS 84기준) 수입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입액	증가율
2002	6,873.1	20.4
2003	8,435.4	22.7
2004	11,178.2	32.5
2005	15,703.4	40.5

자료 : 러시아 통계 위원회

- 기계류 수입의 중심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Bunge(미국, 1억3천만 달러), Glaverbel(벨기에, 1억 달러), Komatsu(일본, 27백만 달러), Nokian(핀란드, 6천만불), 네슬레(스위스, 2억5천만 달러), Industrial Building Co.(이스라엘, 1억 달러) 등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설비투자를 하였거나 진행 중임.

〈표 Ⅲ-8〉 주요 국가별/연도별 대러 기계류(HS 84기준) 수출 통계

(단위 : 천 달러, %)

국가	2002	2003	2004	2005
독일	1,779,732	2,196,054	2,875,471	3,641,254
중국	239,956	359,431	725,170	1,421,916
이탈리아	836,417	878,809	1,168,879	1,828,740
프랑스	232,370	271,825	378,990	538,743
미국	643,341	692,381	699,745	970,600
우크라이나	581,249	681,988	809,009	957,896
핀란드	200,012	301,047	317,362	546,125
일본	204,367	323,382	458,507	626,438

자료 : 러시아 통계 위원회

IV. 건전해지고 있는 국가 재정 운영

- 석유·천연가스 수출 호조에 따라 정부 재정 수입도 대폭 늘어났음.
 - 정부 재정수입은 주로 채굴에 대한 과세와 수출관세¹⁰⁾에 기인함.
 - 이에 따른 세수는 일부는 국가예산으로 편입되고 일부는 석유안정화기금으로 비축됨.
- 러시아 정부는 2004년 1월 오일머니의 과다 유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을 제거하고 향후 유가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수출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석유안정화기금」을 설립하였음.
 - 2007년 4월 현재 기금 규모는 1,080억 달러에 달함.

〈석유 안정화 기금〉

-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양한 외화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한 ‘연방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 연방 투자기금 총괄 운영은 재무부에서 담당하며, 기금 일부의 관리를 중앙은행에 위임하여 집행하기도 함.
- 연방투자기금은 외국 주식 매입, 채권 매입, 외환 포트폴리오 구성 등의 방식으로 투자되며, 재무부에서 정한 ‘투자적정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
- 2005년도에 집행된 석유 안정화 기금의 주요 내역은 대외 부채의 조기 상환, 국민 연금의 부족분 해소 등이었음.¹¹⁾
- 최근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은 안정화기금 가운데 GDP의 10% 정도를 유가 급락에 대비한 비축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수익이 높은 국내외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안
 - 이 경우 2008년 2월까지 공격적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24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10) 현재 원유 수출세는 톤당 156.4달러 수준이며, '07년 7월부터는 200.6달러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임

11) IMF 차관 상환 33억3천만 달러, 파리클럽 부채 상환 150억 달러, 국민 연금 부족분 해소 10억4천만 달러 등

□ 외채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중임.

- 석유안정화 기금을 재원으로 2005년 중 IMF 차관 33억 달러와 파리클럽 채무 150억 달러 등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파리클럽 채무 237억 달러 전액(224억 달러 조기상환 포함)을 상환하였음.

* 정부외채 / GDP : 10.2%('05년 말) → 5%('06. 8)

- 정부의 대규모 외채상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기채활동에 나서고 있어 외채총액은 빠르게 늘고 있음.

□ 연방정부 재정운용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지나치게 방만한 지출은 자제하고 있음.

〈표Ⅳ-1〉 러시아 연방정부 재정 규모(GDP 대비 %)

	2004년	2005년	2006년
세입	20.1%	23.7%	23.5%
세출	15.8%	16.2%	16.2%
흑자 비율	4.3%	7.5%	7.4%

자료 : ЭКОНОМИК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ОССИИ МАРТ 2007 ГОДА(Институт Экономики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 러시아 정부의 최우선 순위 정책과제는 국민 생활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보건, 주택, 교육, 농업진흥” 부문에 대한 공공 투자 증가임.

- 푸틴 대통령은 '05년 9월 4대 국책과제로 보건·주택·교육·농업 부문 발전을 제시하였음.
-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도 주요 정책과제임.

□ 세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 임금 향상, 주요 공공정책 시행, 국방비 증가, 연금 운용, 지방 정부 지원, 도로 건설 및 보수 등임.

- 푸틴은 오일달러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음.
- 2006년 국방비 지출규모는 234억 달러임.

□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현황의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표Ⅳ-2〉 러시아 주요 공공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주요 사업 내용	발주처	총 사업규모 (억루블)
Angara 강 유역 종합 개발 사업	수력발전소, 알루미늄 공장, 제지 공장, 전력선 공사, 철도 공사, 차량용 교량 건설 등	Krasnoyarsky 개발 공사	3,587
서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	Saint-Petersburg 주위 고속도로 건설	ZSD社	827
Moscow-saint- Petersburg간 고속도로 건설	기존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 구간 현대화 공사	연방 도로 관리청	549
석유 화학 정제 설비 사업	Tatarstan에 위치한 Nizhnekamsk에 석유 정제 공장과 화학 공장 설비 건설	Tatneft社	1,303
Chita州 광산 개발 산업	다원소 광산 개발 사업 및 철도 공사	Norilsk Nickel社	1,414
Moscow-Minsk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Moscow-Minsk구간의 일부인 모스크바 외곽 순환도로 확장 공사	연방 도로 관리청	173

* 러시아 특성상 우리 기업의 직접 진출은 쉽지 않으나, 러시아 파트너를 통한 우회 진입은 가능성이 충분

V. 시사점, 향후전망 및 우리의 대응방안

- 고유가로 인해 러시아에 유입되고 있는 오일머니 덕분에
 - 가계는 활발한 소비를 하고 있으며,
 - 기업은 (해외)투자와 설비 구입을 확대하고,
 - 정부는 각종 공공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변화무쌍한 현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상품수출 및 현지 투자와 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러시아 진출을 강화해야할 시점임.

1. 시장 환경

□ 오일달러 유입과 경제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듯

- 전반적으로 유가의 급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안정화기금도 적지 않게 확보하고 있어 석유/가스수출과 민간소비 주도의 성장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국가의 경제개입이 확대되면서 야기되고 있는 경제개혁 지연과 불투명한 제도 환경은 민간기업 투자, 특히 외국인투자를 가로막아 장기적으로 성장억제요인이 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과 맞물린 2008년 대선정국의 불확실성은 정치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민간소비 확대는 지속될 것이나 시장 경쟁상황은 더욱 격화될 듯

- 민간소비의 GDP 비중이 현재의 50%에서 향후 선진국 수준인 70%선까지 지속 확대될 것임.
- 소비시장 활황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자 경쟁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지 생산체제 구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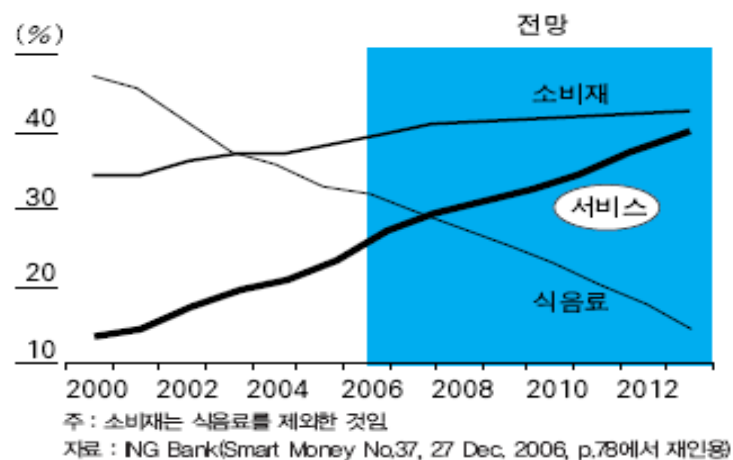
□ 고가의 고급 브랜드 제품의 판매 증가세는 지속될 듯

-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소비수준이 이미 웬만한 서유럽 수준임.
- 소득수준 확대에 따라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듯

- 아직 서비스 시장은 초기단계이며, 소득수준이 증가된 시민들은 상품과 더불어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커질 것으로 보여 서비스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통신·외식·여가·교육·보건·금융 등 서비스 시장은 향후 성장의 여지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V-1〉 러시아 서비스 시장 발전 현황 및 전망



2. 기업 투자

□ WTO 가입을 앞두고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듯

- WTO 가입 시 대러 투자 장벽으로 여겨지는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투자는 모스크바 중심에서 지방으로 다변화될 듯

- 기업들의 투자 중심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 러시아 지역에서 톰스크 등 특별경제구역 설립 지역과 함께 지방 중심도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자원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해외 투자 진출을 확대할 듯

- 오일머니의 직접적 수혜를 보고 있는 Gazprom(가스), Evraz(송유관) 등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원 관련 해외 기업들에 대한 인수 합병을 통한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3. 정부 정책

□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부문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다변화를 역점과제로 추진 중임.

- 연평균 7%선의 고도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세입/GDP/수출에서 에너지 부문이 각각 45%/16%/66%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 현상은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갖춘 부문(원자재 가공, IT, 우주, 항공, 조선 등)의 집중 육성 및 제조업 분야 수출 증대를 통해 ‘에너지 의존 경제구조’ 개선을 기본 목표로 설정(특히 IT 부문 육성에 강한 의지)하였음.
- 이를 위해 관련예산을 확대하고, 투자·벤처기금(인프라 확충·IT산업 지원용) 조성, 개발은행 설치(수출지원 목적) 및 경제특구 창설 추진 등 투자환경 조성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연방정부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유럽러시아지역에 발전이 편중되어 시베리아와 극동의 공동화 심화현상 해소가 필요한 상황임.(장기적으로 이 지역에 활발한 중국인 진출은 지역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프로젝트이나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가능성이 큼.

□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확대 추진이 예상됨.

- 2006년 “전국가적 차원의 민-관 협력 투자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창설한 ‘투자기금’을 2007년에 2,000억 루블(약 73.6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열악한 도로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 방식으로 유료도로 건설을 추진 중임.

〈2007년 푸틴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경제관련 주요내용(4.26 실시)〉

□ 주택문제 해결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2,500억 루블(100억 달러) 규모의 특별기금 설치 계획
- 소요자금은 세금징수제도 개선, 국유자산 사유화 및 유코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조달

□ 석유안정화기금(Stabilization Fund) 기능 및 구조조정

- 2002년 설립된 석유안정화기금을 3부문으로 분리하고 명칭도 National Prosperity Fund로 변경
- ① Reserve Fund : 국제유가 급락에 대비, ② Federal Budget : 대규모 사회보장 프로그램 수행, ③ Fund for Future Generations

□ 연금문제 해결

- 부적합한 연금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연금생활자들이 최저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인플레이션, 인구문제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 적자 문제가 발생할 것
- 향후 연금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번영기금(National Prosperity Fund)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개발기관 설립

- 국가변영기금으로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투자기금(Investment Fund) 및 벤처기업(Russian Venture Company) 투자에 금년 중 3,000억 루블(약 115억 달러) 할당
- 개발기관들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은 인프라 투자, 천연자원 효율적 이용, 생산시설 현대화 및 첨단기술 개발에 이용될 것

□ 중소기업 발전

□ 에너지산업 투자

- 현재 전력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 및 민간기업이 약 12조 루블(4,70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
- 향후 12년간 2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는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 있음

□ 교통인프라 개선

-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GDP의 약 3%로 추산
- 도로사정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출이 2005년 이래 2배로 증가하였으나, 추가로 1,000억 루블(40억 달러)을 더 배정할 예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필요

□ 항공 산업 개발

- 항공기부문 현대화와 새로운 민간항공기 개발을 위해 통합항공사를 설립
-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금년 중 국제적인 협력파트너를 선정

□ 선박산업 육성

- 지난 10년간 국내 선주들은 약 90% 이상을 외국선박 제조회사에 발주하는 등 국내 선박산업이 쇠퇴하고 있어 선박 설계, 건조 및 유지보수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통합조선소 설립이 필요
- 조만간 선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결정될 것

□ 나노기술(Nanotechnology) 개발

- 최근 나노기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센터,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를 망라한 나노기술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함
-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 특수회사(Russian Nanotechnology Corporation)를 설립하고, 1,300억 루블(약 50억 달러) 투자 계획

4. 우리의 대응 방안

우리기업들은 '90년대 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달리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2000년대 들어 높은 판매 성장을 보인 바 있으나(2006년 수출실적은 5,179백만 달러로 1999년 637백만 달러에 비해 8배가 넘게 신장), 시장 여건이 호전되면서 서방의 대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중국 등지에서 저가상품이 몰려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상황임.

☐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함.

- 아직도 소득수준이 낮고, 소비가 낙후된 시장으로 잘못 평가하는 사례가 많은데, 높은 소비력을 갖고 있음을 냉정히 평가해야 함.

☐ 활발한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진출을 강화해야 함.

-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제품 분야를 주목할 필요성 있음.
- 러시아내 자체 생산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품질수준이 낮아,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음.
- 이태리, 독일 등 유럽제품이 선호되고 있으나,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공략하면 가능성 있음.
- 또한 건설 중장비도 수요가 매우 높은바 중장비 및 부품 진출 가능성도 큼.

☐ 현지 제조업 투자가 활발한 만큼 기계설비도 유망하며, 단순 판매가 아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 구소련시절의 산업설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계설비가 필요한 바,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 이태리 등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A/S 및 적시 부품공급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 현지 엔지니어 채용/교육과 더불어 현지에 부품 여분을 보관하여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민간소비품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현지생산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
 -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망하는 우수 기업들이 많았지만, 호황이 지속되면서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어 상품시장은 공급자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위주의 시장으로 급격히 레드오션화하고 있음.
 - 저가제품은 중국, 터키 제품이 석권하고 있으며 우리의 진출이 쉽지 않은 여건임.
 - * 가전, 무선통신,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상품군에서도 중국과의 품질 격차는 좁혀지고 가격경쟁력은 절대 열세인 상황임.
 - 현지인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한 마케팅 전략 수행과 함께 현지생산을 통해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성 있음.
 - * 러시아 시장에서 자리 잡으면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으나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1억3천만 규모의 나머지 CIS시장도 공략이 수월해 짐을 고려해야 함.
- 신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높은 바, 신규 제품라인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함.
 - 제품 교체 주기가 짧은 소비자 성향에 맞출 수 있도록 꾸준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야 함.
- 러시아정부에서 IT 관련 육성 의지가 강한 바 이를 적정히 활용해야 함.
 -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부 IT 장비 수출 유망함.
 - 한국이 매우 앞서 있는 분야인 행정 전산화(전자조달시스템 등), 전자 교육 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도울 수 있을 수 있을 것임.

-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장기적으로 서비스 시장 진출도 준비해야 함.
 - 서비스 시장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나 러시아 시장은 아직 초보 단계로 WTO 가입협상에서도 서비스 시장 개방은 최대한 늦추고 있음.
 - 급속히 퍼지고 있는 웰빙트렌드와 이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을 메뉴로 하는 고급 식당 유망함.
 - 추운 겨울이 긴 지역특성상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등 게임 콘텐츠 산업도 진출 유망함.
 - 물자 유통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창고(warehouse) 공급이 부족하며, 특히 모스크바 근교를 중심으로 창고 분야 고성장이 전망됨.
 - 성장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과 연계된 금융, 법률 등 서비스분야의 진출도 유망함.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중국 비즈니스 이정표: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2007.2
07-005	대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7.3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3
07-010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2007.4
07-113	멕시코 수출, 산업 진흥제도(IMMEX/PROSEC)의 이해	2007.4
07-014	EU 가입 3주년,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변화 추이	2007.4
07-015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2007.5
07-016	발칸국의 투자진출 여건 분석	2007.5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중국 지재권 백서	2007.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2007.3
07-003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7.4

작성자

◆ 윤정혁 과장 (중아CIS팀)

◆ 김정훈 과장 (모스크바 무역관)

Global Business Report 07-017

러시아 오일머니, 어디로 가고 있나

발 행 인 | 흥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7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